

# 문화공간

시 민 과 함 께 하 는 문 화 예 술 의 허 브

NO. 366 | 2014 09

## 50년, 그리고 또 다른 시작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50주년 기념 음악회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박인배 사장과 마주 앉은 연출가 구태환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피노키오 다시 보기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재능기부에 대하여, 반이정의 말말말  
연계공연 마니아 박무식 · 강춘옥 부부의 노년을 즐기는 방법

별책부록 | 프로그램 가이드





글 황여정(작원기자)  
사진 양광수(SEOUL PHOTO'S STUDIO)  
장소 라 카페 갤러리

## 삶의 균형이라는 외줄타기에서의 승리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휘몰아치는 일의 더미 속에 빠지기 전, 출근길 한 시간 도보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며 합창으로 조화와 배려를 즐겁게 몸에 익혀나가는 임성택 변호사. 국내에 굴직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로 통하는 것은 물론 공익 활동까지 욕심껏 하는 그가 일과 여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예술의 공이 큼직하다.





2014년 송무(소송에 관한 업무) 분야에서 한국 경제신문 '로펌 분야별 최고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선정, 현재 변호사 140명의 8대 로펌 지평의 창업자, 국내 굴지의 금융 기관들과 대형 건설회사의 굵직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어려운 소송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사회복지, 남북관계 등 공익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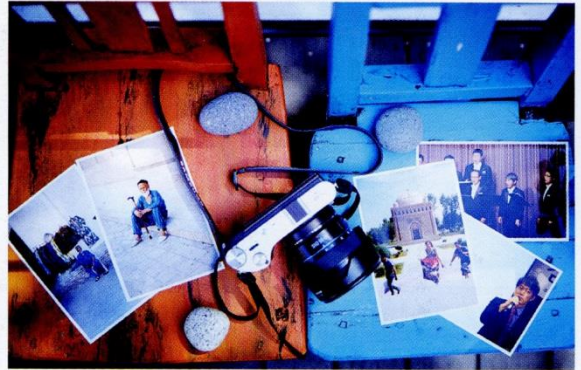
치열한 삶의 태도에 기대어 살다보면 어느새 일의 울무에 빠져 일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전문직 종사자의 모습일 터인데 임성택 씨는 좀 다르다. 일에서도 성공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삶에서의 여유와 만족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일과 여가라는 어려운 외줄타기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예술의 힘이 크다고 말한다. 때로는 미술이, 또 때로는 음악이 그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줘 일해야 할 때는 치열하게 하고, 현재의 시간을 음미할 여유가 생겼을 때는 풍류가처럼 멋지게 즐길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사무실까지, 자동차로 십 분이면 달을 거리를 그는 한 시간 동안 걷는다. 부암동 자택에서 서촌 골목길, 세종문화회관 뒷길,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을 지나 서대문 사무실에 다다르는 루트다.

“제 주된 업무가 건설부동산 쪽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레 도시, 건축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한 시간 덜 자고 일어나, 같은 길을 매번 반복해서 걸어다니면서 길에 얽힌 역사, 오래된 건물과 아파트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그 안에서도 강북이라는 동네가 주는 정서가 있잖습니까. 여기는 이상이 살던 집, 저기는 운동주가 걷던 길 등 곳곳에 스토리가 있어 바쁜 걷던 걸음을 늦추게 되고, 사색에 빠지게 되죠. 그 기운에 기대 매일 아침 피로가 몰려가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힐링됩니다(웃음).”

왼쪽 사진은 지난 7월, 북한 관련 학술회가 있어서 찾은 중앙아시아에서 찍은 사진.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의 나라지만 사람들은 외부인에게 개방적이어서 사진찍는 데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오른쪽 사진에서는 세종르네상스 CEO 합창단 활동 당시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매번 같은 길을 걸어다니면서 오늘은 무엇을 보게 될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행자의 자세로 설레는 출근길에 오른다. 한 손에 미러리스 카메라가 들려 있는 날도 있다. “사진을 찍으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찍어놓은 사진을 한참 뒤에 다시 보면서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길모퉁이에 작은 야생화도 찍고, 광화문 한 거리에 손잡고 느릿하게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도 찍고 합니다.”

독립문 뉴타운 쪽에 옛날 간판의 쌀가게나 분식집도 찍곤 했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져서 역사적인 사진이 됐단다.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시작하는 아침, 그는 거기서 좀 더 시간을 잘 헤아리는 법을 터득하고 자신만의 시간의 풍경화를 그려나가고 있다.

세종과의 인연은 몇 해 전, 세종르네상스 과정에서 시작했다. 미술이면 미술, 건축이면 건축, 음악이면 음악, 좋아하는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 못지 않은 소양을 갖추고 싶어하는 그이기에 바쁜 와중에도 좋다는 강좌는 꼼꼼히 찾아 들곤 하는데, 합창 수업도 그렇게 된 시작한 셈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창 수업을 듣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세종르네상스 CEO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일 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가진 게 벌써 5년째다. 모두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할 바쁜 사람들인데도 매번 연습 때마다 출석률은 80% 이상이라고.

임성택 변호사는 “저 역시 그날만큼은 따로 시간을 빼놓고 참석합니다. 제가 느끼는 합창의 매력은 조화와 배려에 있어요. 합창 덕분에 제 인생에서의 조화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많은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저 자신에게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할 때가 많은데, 합창은 타인의 목소리를 잘 듣는 연습을 시켜주는 데 안성맞춤이죠”라고 말한다.

로펌 내에서는 문화 활동 동아리 ‘다감다사(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한다는 뜻)’를 운영하며 선배 변호사들과 함께 틈날 때마다 연극, 영화를 보러 다닌다. 로스쿨 출강도 나가는데, 종강 때는 학생들을 데리고 북촌 혹은 정동길 투어를 나서기도 한다. 직접 주제를 기획해서 동선을 짜고 가이드를 자청해서 동네에 얽힌 문화까지 알려준다. 한때는 일이 삶의 모든 것이어서 그 누구보다 바빴던 그이기에 정신없고 바쁜 일상 속에 사는 도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이 뉴턴의 계산법이고, ‘인간은 시간에 간섭할 수 있으며 시간은 여행자의 속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적 개념이었는데, 점점 더 삶의 여유가 없다고 푸념하고 있다면 예술에 대한 탐닉으로 시간을 지배하는 임성택 변호사와 같은 삶으로 배팅해 보라. 임성택 변호사가 산증인이 아닌가. ☞